



시흥제일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24일 시흥시 관내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품 라면 100박스를 시흥시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후원품은 시흥시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아동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양복근 이사장은 “지난 2004년 4월 시흥시가족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 결식 예방 활동(사랑나눔식당)에 함께 해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이번 겨울에도 우리 지역에 미래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의 후원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욱 관심을 갖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조부모 가정 그 외 가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시흥시가족센터(031-319-799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문화,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 사업 등 시흥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시흥시 어르신 건강 위해 연중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내내 실시한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면 치명률이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1960년생 어르신은 올해부터 신규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기관은 시흥시청 누리집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폐렴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 of Local Tax Debts  
地方稅滯納金繳納說明

#### 지방세란? What are local taxes? 什么是地方稅?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포함)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These are the taxes that all residents (including foreigners) residing within the jurisd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ay.  
指的是居住在地方自治團體的居民(包括外國人)都應當繳納的稅金。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What is the Individual (equal amounts) Resident Tax?  
什么是个人(均等分)居民稅?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개인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All individuals who are registered as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have their address in Siheung City as of July 1st are subject to payment of the Resident Tax every year.  
根據出入境管理法的規定,進行了外國人登記,而且住址位於始興市的個人應當於每年7月1日為準繳納居民稅。

**자동차세란?**  
What is the Automobile Tax?  
什么是汽車稅?

자동차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he Automobile Tax is imposed only on individuals who purchase or possess automobiles.  
如果購買或擁有汽車時,應當繳納相應的地方稅。

시흥시청 징수과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 of Local Tax Debts  
地方稅滯納金繳納說明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What happens if you do not pay the local taxes? 如果不繳納地方稅的話?

급여, 예금, 주택임차보증금 및 보험금 압류, 소유한 차량, 부동산 등이 공매처분 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체류연장, 관허사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Salaries, deposits, tenancy deposits, or insurance money can be confiscated, or vehicles and real estate properties can be liquidated through public sales. In addition, the extension of stay or operation of government-licensed businesses can be restricted. In particular, license plate can be officially confiscated and held if the automobile tax is not paid.

工資、存款、住宅租賃保證金、保險金可能會被扣押,且本人所有的車輛、不動產等也有可能被拍賣。除此以外,滯留時間延長、政府批准的项目也有可能因此受到不利影響。特別是,如果不繳納汽車稅時,汽車牌照也有可能被收管。

**체납세액** Tax Amounts Debts  
滯納稅額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繳納期限

고지서 또는 안내문 참고  
Please refer to the tax bill or notice  
參考通知書或說明文

**납부방법** How to Make Payment  
繳納方法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ARS ☎1899-2800),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납부  
Payment can be submitted through Virtual Account, Credit Card (ARS ☎1899-2800), or WETAX ([www.wetax.go.kr](http://www.wetax.go.kr))  
虛擬帳戶匯款、信用卡繳納(ARS ☎1899-2800), WETAX([www.wetax.go.kr](http://www.wetax.go.kr)) 繳納

**문의사항** Inquiries  
諮詢事項

시흥시청 징수과 ☎ 031-317-0986, 0950, 0954  
Tax Collection Department, Siheung City ☎ 031-317-0986, 0950, 0954  
始興市庁征收科 ☎ 031-317-0986, 0950, 0954

시흥시청 징수과



## “도서관에서 꿈과 희망 키워요”

### 새해 도움 될 다양한 시흥시 도서관 정보



#### #전자도서 서비스 확대

시흥시도서관은 지난 1월 3일부터 구독형 오디오북 및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구독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은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를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정된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혜 인원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흥시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1인당 월 대출 가능 권수는 6권으로 제한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시흥시도서관 누리집(<https://lib.siheung.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App)에서 로그인한 후 구독형 서비스 페이지에서 대출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흥시도서관은 디지털 서비스의 단계적 강화를 위해 올해 소장

형 전자책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시흥시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031-310-5204)으로 하면 된다.

#### #‘그림책’ 매월 원화 전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은계도서관은 1월부터 매월 그림책 원화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그림책과 더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계도서관은 특화 주제로 ‘그림책’을 선정하고, 매월 그림책 1권을 고른 후 해당 작품의 원화를 프린트 액자 형태로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되는 작품은 매달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의 세계를 소개하며, 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원화 전시는 1월 <도깨비가 꿈지락꿈지락>(김성범, 미래아이)을 시작으로 3월 <굴 양말이 사라졌어>(황지영, 위즈덤하우스), 12월 <엄마의 여름방학>(김유진, 책읽는곰) 등 매월 미래아이, 위즈덤하우스, 책읽는곰 등 다양한 출판사들의 각양각색 원화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은계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외부 복도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관련 책을 읽을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은계도서관(031-310-27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정 위해 기관 힘 모아

### 시흥시가족센터, 함께하자·해외자원봉사단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지난해 12월 24일 (주)함께하자(대표 이광재), 시흥시해외자원봉사단(회장 김명주)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이 참석한 3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 기관이 ▲지역사회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협력 ▲다문화가정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다문화가정 활동 연계 및 홍보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각 기관 합의사항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함께하자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스물웨딩, 백일잔치, 돌잔치 및 가족행사 예산 지원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시해외자원봉사단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네팔 등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학교 내 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 등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역량강화사업,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함께하자 이광재 대표는 “오랜 시간 지역에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시흥시 내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다문화가족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소외되고 고

립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에 선한 영향력이 퍼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해외자원봉사단 김명주 회장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인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봉사단 단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봉사에서 더 나아가 이번 협약식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지원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한 첫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정왕전통시장 5층 라온마루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교복 무료 나눔 및 비즈공예 체험, 가죽 키링 만들기 체험, 도마 만들기 체험 등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으며, 약 30가정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A(16)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키가 많이 크면서 교복이 작아졌는데, 다시 새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체육복을 입고 다녀야 하나 고민했다. 근데 이렇게 새것처럼 깔끔한 교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학생의 어머니는 “첫째 아이 교복 선물도 받고, 둘째 아이와 같이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어 감사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식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지원을 하는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지역경제 살리는 시흥화폐 시루**

## 시루 10%특별 할인 이벤트

**시흥화폐 시루**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는 월 구매한도액 30만 원 내에서  
10% 할인 적용,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

- 진행기간** 2025. 1. 1.(수) 00:30 ~ 예산 소진 시까지
- 월 할인한도** 30만원(모바일, 지류권 통합)
- 문의사항** 시흥시청 소상공민과 ☎ 031-310-3546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에 따른**

## 상하수도요금 감면안내

- 신청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가정
- 접수기간** 수시(매월 25일까지 신청은 다음달 고지분, 26일부터 신청은 다다음달 고지분 적용)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전화 및 인터넷 신청접수 불가
- 신청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ARS ☎ 031-5183-0400

**▶ 자세히보기**

# “성병과 에이즈가 걱정된다면 어디서 검사를 받을까?”

##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에서 무료 및 익명으로 검사 받을 수 있어



### 세계에이즈의날이 뭐야?

지난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어요. 이 때문에 한국 곳곳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어요.

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에 감염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안전한 성관계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에이즈 감염 초기에는 두통, 발열, 인후통, 피부발진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염이 의심되면 의심 시점에서 4주 후에 HIV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 에이즈 검사는 어떻게 받아?

한국에서 외국인이 에이즈 검사를 받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예요.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여러 지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전화로

문의해야 해요. 특히 에이즈 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성병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검사 후 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전국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예요.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한국어 외에는 소통이 어렵고 보통 1주일 정도 지나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요.

###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가 뭐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www.khap.org)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외국인 에이즈 예방 지원센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

한 에이즈 검진과 상담 등 에이즈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요. 또한 외국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는 서울(성북구 동소문로 209, 1층)에 있고 경기도 안산(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5-1, 4층)에도 검사 시설이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문의 02-927-4322

(중국어 29면, 베트남어 19면, 태국어 19면, 영어 23면, 일본어 24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 “Where can I get tested if I’m concerned about STDs and AIDS?”

## You can get tested for free at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 What is World AIDS Day?

Last December 1st was 'World AIDS Day'. For this reason, campaigns were carried out all over Korea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about AIDS and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infected. AIDS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immune system is weakened due to infection with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t is not transmitted through casual contact, and infection can be prevented through safe sex.

In the early stages of AIDS infection, symptoms similar to a cold may appear, such as headache, fever, sore throat, and skin rash. Therefore, if infection is suspected,

it is important to get tested for HIV 4 weeks after the suspected time.

### How do I get tested for AIDS?

There are two ways for foreigners to get tested for AIDS in Korea. First, you can get tested through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You can get tested in many areas, including Seoul and Ansan, Gyeonggi-do, but since they are not always available, you must call first. In particular, you can get tested for various STDs along with AIDS. You can get tested for free and you don't have to reveal who you are. It's good that you can get the results within 20 minutes of the test.

The second way is to get tested at a public health center nationwide. It's free and anonymous, but communication is difficult outside of Korean, and it usually takes about a week to get the test results.

### What i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perate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www.khap.org). Located in Seongbuk-gu, Seoul,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provides comprehensive AIDS-related services, including AIDS screening and counseling,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t

also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bout AIDS to foreigners and provides various support services to foreigners infected with AIDS or patient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is located in Seoul (1st floor, 209 Dongsomun-ro, Seongbuk-gu) and also has a testing facility in Ansan, Gyeonggi-do (4th floor, 15-1 Wongok-ro, Danwon-gu, Ansan-si), but it is not always open, so you must inquire by phone.

We also conduct inspections in major cities nationwide as needed. For inquiries, call 02-927-4322.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가족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 경제 살리기 최우선으로 바이오, 시화호, 균형발전 4대 비전 추진

이주민도 관심 가져야 할 시정...임병택 시장 “시민의 힘으로 민생 회복, K-시흥 완성”



임병택 시흥시장이 1월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민생과 미래를 비전으로 한 2025년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임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았으며, 바이오, 시화호,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시흥시는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흥화폐 시루 10% 특별할인을 진행 중이며, 시흥시 전 직원이 지역별 골목상권을 방문, 자율적 소비를 이어가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더불어 특정 기간 시흥시 전 지역 시루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진흥원 내 상권활성화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2만 8천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안정된 삶도 뒷받침한다. 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확대와 시흥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신규 추진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쏟고, 동장신문고와 시흥돌봄에스오에스센터 등 동 중심 시민 체감행정은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지난해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한 시흥시는 올해 단지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는 선도기업 유치 공모에 종근당과 일동제약 등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시는 향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과 함

께 투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가칭)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현대건설과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는 이달 중 정식 개소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한다.

월곶역세권은 속도감 있는 착공을 통해 초광역 바이오중심단지로 조성하고, 정왕지구는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사업 전락구상에 노력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유치 및 소부장 업종 전환으로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특히 “특화단지 선정의 선결 조건이었던 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시민의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반드시 확실한 안전을 담보로 추진하겠다”라며 “송전선로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준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시화호는 올해 기념사업을 확장하며 세계 속 시화호 도약을 꾀한다. 시흥시는 거북섬 숙박시설과 관광 시설을 기반으로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유치하며 시화호를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구역 선정으로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향후 세계호수회의 유치,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에도 주력하며 세계의 이목이 시화호에 집중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해양생태과학관 개관과 클럽하우스 착공이 목표다. 더불어,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에 따라 2029년까지 14개 특화사업에 2,280억 원을 투입하고, 1조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유치에도 전략적인 준비를 이어간다.

무엇보다 시화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협력해 온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화호권 기관 간 연계와 협력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임 시장은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철도망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며 균형발전 의지도 밝혔다.

신안산선은 현재 매화역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강선 월곶~판교 구간은 2030년경 완공이 예상되며 장곡역은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신천~신림선 및 광명시흥지구 남북철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사업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한다. 월곶역세권은 2,710세대 공동주택 조성하고 함께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연계를 위해 지난해 10월 바이오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안산선 매화역과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흥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서해선 대야역 인근에 2,527세대를 공급하는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3년 12월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 상반기 중 예정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에 힘쓴다.

시흥시청역 일원은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 환승주차장 등이 포함된 고밀·복합개발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민간 공모를 통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시흥광명 신도시는 1,271만㎡ 부지에 6만 7천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보상 공고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명품 신도시를 만든다는 포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정책이 한 몸”이라며 “작은 변화부터 큰 도약까지, 그간의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의 힘이 시정의 원동력이다. 시민의 연대와 화합, 배려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남은 민선8기도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모집...근로이익 고취 및 생계안정 도모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에 참여할 시민 82명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이익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상반기 사업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아사업’ 43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 39명으로 나눠 운영된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아사업’은 주로 관내 관광자원 및 문

화 향유 공간(공원, 녹지 등)의 환경정비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아(배곧·월곶 텃밭사업, 연꽃테마파크 관리 등) 제공을 담당한다.

근로 조건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아사업이 1일 4시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은 6시간(65세 이상은 4시간)으로 나뉘며, 시간당 임금은 10,030원(최저시급)이다. 주휴 연차수당 지급과 4대 보험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의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

이 없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센터팀(031-310-6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в престижном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о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한국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는 법

Какая мечта у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роживающего в Корее?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ваться в стране с устойчивым визовым статусом, жить с семьей и хорошо зарабатывать. Недавно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нонсировало новые визовые программы, чтобы помочь в достижении этих целей.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инициативы, такие как система баллов K-point для визы E-7-4 или региональная ви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F-2-R,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их получении.

Что же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и семьями, которые часто ограничены работой на заводах или в ресторанах? Для лучшей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поиска достойной работы им необходимо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Однако сочетать работу и учебу нелегко, а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требует значительных затрат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Но теперь появился доступный вариан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ть эти препятствия.

## Реально ли оконч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орее?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ректор: Бён Чангу) с поддержк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создал факультет «Глоб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Благодаря формату онлайн-занятий и экзаменов,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совмещать работу с обучением.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иже, чем в других вузах: если годовое обучение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оставляет 7-9 млн вон, то здесь, с учетом стипендий, стоимость всего 1,512,000 вон в год.

В первый год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т базовые предметы, такие как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и 2»,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основы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следован

ие профессий и учебные стратегии», а также «Глоба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Это помогает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учебной среде и выбрать подходя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учения. На старших курсах можно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IT, электронику, менеджмент, туриз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 Что делать,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ий?

Даже без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 можете поступить в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Перед началом учебы вас направят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курс в Центр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вы получите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За прохождение курса студентам начисляются 6 учебных кредит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чередовать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специаль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улучшая свои языковые навыки.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TOPIK 3 (средний) или выше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освоение программы, а за получение уровня TOPIK 4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стипендия.

##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ает диплом?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является филиалом престиж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и выпускники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ваемые как степени 4-летнего обучения. Это открыв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ыпускники получают 20 баллов в системе K-point для визы E-7-4, а за счет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4) добавляют еще 120 баллов. Кроме того, диплом увеличивает шансы на получ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визы и улучшает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пример, Ли Джин, выпускница из Вьетнама, отметила: «До учебы я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не могу стать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

ва. 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я обрела уверенность и стала полноценным членом общества».

## Стипендии и льготы

Студенты факультета «Глоб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получаю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типендии: за поступление, за успеваемость и на основе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Более 97%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переведенных из других вузов,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кидки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 больницах Кёнхи и бесплатны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для мигрантов.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ервый семестр 2025 года проходит до 14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ервый этап) и до 14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второй этап). Заявку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через сайт Центра приема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go.khcu.ac.kr).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Со Чжинсук,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помогает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развивать как академические, так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обеспечивая их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ей и стабильной жизнью в Корее».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сайте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й: 02-959-0000. <한글 기사 지난호 9면>

### 자주 묻는 질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대학인가? 일반 4년제 대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일반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가능합니다.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 시험, 과제 제출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해외와 지방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 및 과제 제출은 PC만 가능하며, 강의 수강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입학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터넷 원서 접수 > 자기소개서의 인성검사 > 입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입학전형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수능 점수나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글로벌자율학부에 입학할 경우, 공통서류 이외에 외국인(여권 사본 등) 및 다문화 가정(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를 참고하세요.

**전원료 및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자율학부 입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50%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  
\*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전액로 면제  
\* 실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해외국민, 외국인은 면제)

전원료	실입학비용	등록금
30,000원	99,000원	학정당 84,000원 (12학점 1,008,000원 ~ 18학점 1,512,000원) 장학 반영 시, 학정당 42,000원 (12학점 504,000원 ~ 18학점 756,000원)

**한국어를 잘 못해요. 어떡하죠?**

입학 전·후 기초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되는 디딤과정(한국어연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디딤과정 상시 개설: 아카데미일본어1, 아카데미일본어2, 아카데미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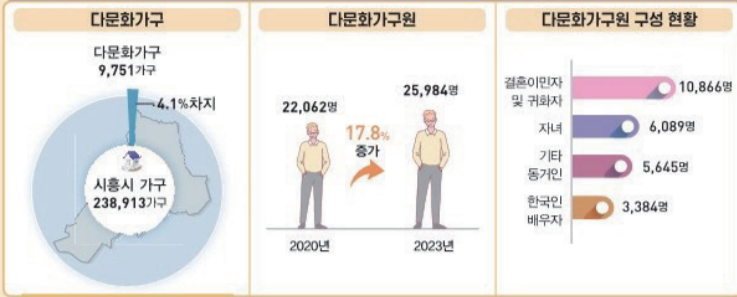
TOPIK 2급 이하 및 미소자녀를 위한 코드업			
입학 전		입학 후	
합격자 등록	수강시기 과정 운영주체	입학 전 디딤과정 이수 한국어센터	1학년 1학기 대학한국어 글로벌자율학부
			방학 중 디딤과정 이수 한국어센터
			1학년 2학기 대학한국어2 글로벌자율학부
			방학 중 디딤과정 이수 한국어센터



### 다문화가구 (2023년 기준)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 01. 인구·가구



#### 02.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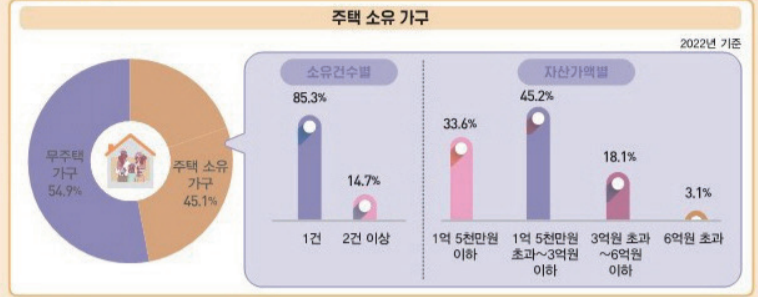


#### 03. 경제활동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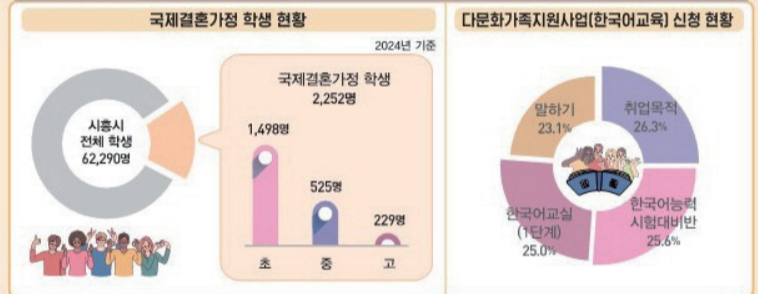
#### 04. 자산



#### 05.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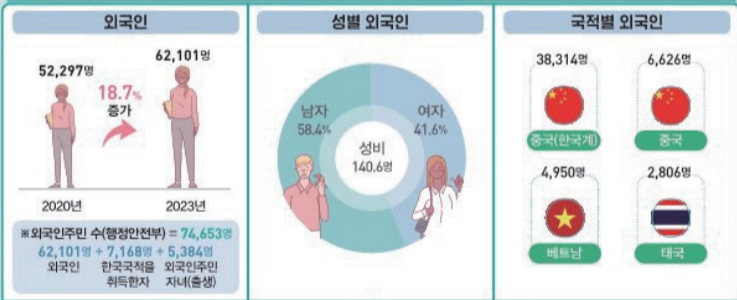
#### 06.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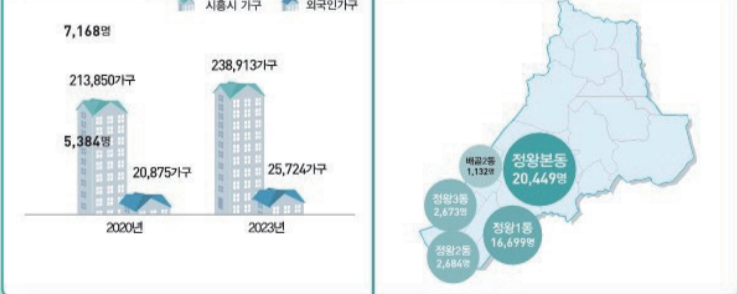
### 외국인·외국인가구 (2023년 기준)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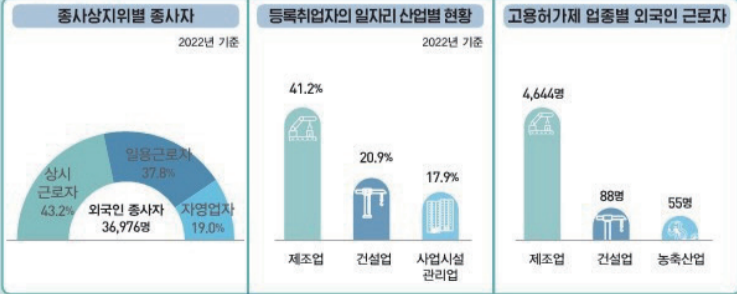
#### 01. 인구·가구



#### 외국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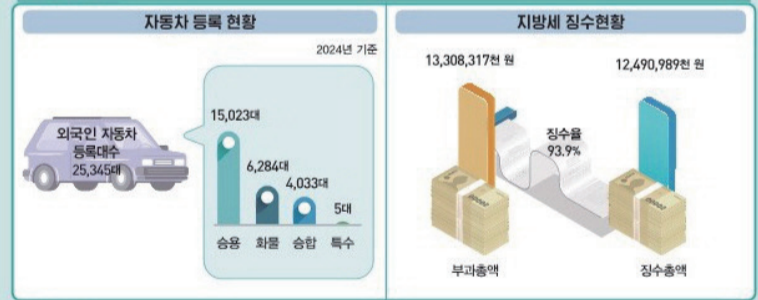


#### 02. 경제활동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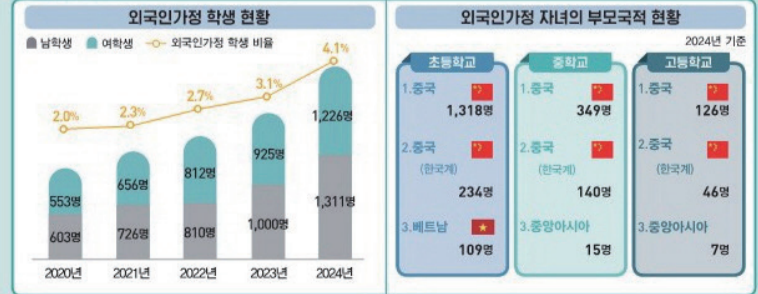
#### 03. 자산



#### 04. 복지



#### 05. 교육



(2024년 12월 31일 국가통계포털 공표)



# 시흥시 다문화가구 지속 증가해

##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공표...실효 정책 추진



시흥시(시흥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12월 31일, 시흥시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2024년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에 관한 통계를 공표했다.(통계자료 26면 참고)

시흥시는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 통계를 작성해 왔으며,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된 두 번째 통계보고서다. 공표된 내용은 인구, 가구 규모, 인구 동태, 경제활동, 자산, 보육 및 교육 등 총 6개 분야, 83개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는 시흥시 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시흥시 다문화 가구는 9,751가구로 시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구원 수는 25,984명으로, 2020년 22,062명 대비 17.8% 증가했다.

2023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수는 2,252명으로 전체 학생 수 62,290명 중 3.6%를 차지했으며 그중 초등학교 재학생은 1,195명(7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41.1세이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17,627명)였으며, 외국인 근로 종사자 중 41.2%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통계가 시흥시의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 위해!

## 시흥시, 새해에도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

### #유행성 감기 예방접종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질병관리청의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전국에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철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커 아직 접종받지 않은 시민들은 이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일상에서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아울러,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2종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큰 어르신과 임산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주 이상 기침=결핵 검진

시흥시는 결핵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국내 법정 감염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기준 국내 결핵 환자 수는 1만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2022년 대비 4.1%(843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시흥시는 ▲기침 ▲가래 ▲미열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체중 감소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결핵 발병 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희망자는 신분증 지참과 함께 보건소 결핵실(031-310-5820), 또는 정왕보건지소(031-310-5925)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으로

시흥시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그러나 환자의 약 70%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간경변증 및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된 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를 8~12주 동안 복용하면 98~99%가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6세 해당자(1968년생)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 검사가 포함됐다. 해당 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은 사람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통해 C형간염 확진 검사(HCV RNA 검사) 비용과 진료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C형간염은 감염됐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과 확진 검사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에서



#### 누가 받아야 하나요?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자격(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G-1 비자는 필수!

#### 결핵고위험국가

네덜,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항목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색신, 청력 등)  
결핵 / 정신허 / 매독 / 간염(HBs Ag) / 마약  
\* 당일 검사 결과 통보 가능

####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문의 : 02-2085-0064

지역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 복십자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3	02-793-4891
부산	부산 복십자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4층	051-611-3622
경기	수원 복십자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8	031-245-8671
강원	춘천 복십자의원	강원도 춘천시 중일로 9	033-257-2057
대전	대전 복십자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45	042-349-9890
대구	대구 복십자의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62	053-474-4711